Stage 12 More Stories A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책에 대하여)	Prunella는 그녀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건방진 Prune(말린 자두)'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친구를 찾기 위해 쓴 편지로 친구를 찾지만, 그녀가 기대하던 친구는 아닙니다.
Talking Points (중요 포인트)	- 책 앞표지를 보고 함께 제목을 읽어보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 물어보세요. - 5페이지를 펴서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보세요. 아이들 사이에 있는 소녀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21~32페이지를 편지를 번갈아 읽으며 함께 소리 내 읽어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 만일 펜팔이 Beth가 아니라 진짜 고아가 쓴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 '건방진 Prune(말린 자두)'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누군가에게 본인이 싫어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 44페이지를 다시 보고 Beth가 말하는 말들을 읽어보세요. 아이에게 왜 Beth가 Prunella를 '건방진 Prune'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Chapter One(챕터 1) Prunella Taylor는 그녀의 Prue 외할머니의 생신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부모님께서 그녀에게 Prunella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입니다.

	Prunella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Prune(말린 자두)'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p4	Prunella는 아주 키가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에서 가장 키가 컸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래로 내려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p5	'넌 건방져!' Beth라는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건방진 Prune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Beth는 또 말했습니다. "건방진 Prune! 건방진 Prune!"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말했습니다. '건방진 Prune! 건방진 Prune!'
p6	며칠 몇 주 동안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안녕, 건방진 Prune아!" Prunella는 그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에서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Beth가 가장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은 친구였습니다. Prunella는 친구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p7	Chapter Two(챕터 2) 문 앞에 Farey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Farey 아줌마는 길 건너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참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옷을 입고 오리와 고양이를 기르셨습니다. Prunella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너를 위해 무얼 가져왔단다. 저번 주에 우리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작은 선물을 주마."
p8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Farey 아줌마는 작은 봉투를 보여주기 위해 손을 펴셨습니다. '정말 작단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너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주길 바란단다!' '감사합니다!' Prunella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됐단다, 아가야.' Farey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렴!'
p9	Prunella는 작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얇고 고양이의 눈 같은 색의 종이로 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붉은 우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선물이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Prunella는 그 우표가 정말 멋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p10	그 작은 조각의 끈적이는 종이는 당신이 전 세계의 누구에게라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표와 함께라면 당신은 국무총리나 여왕님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구나! Prunella에게서 온 편지야!" 당신은 물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학교에 사람들에게 Bella Hall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인지를 알리는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runella는 Beth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p11	정말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분명히 답장을 써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친구가 있다면요. Prunella는 일어섰고 무언가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것은 접힌 작은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표와 함께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p12	Prunella는 그것을 열어서 읽었습니다 - '펜팔 새로운 친구와 펜팔을 해보세요! 'Peyton Times'가 우리의 어린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동호회를 시작합니다: 바로 펜팔 동호회입니다! 그저 저희에게 자신에 대한 것들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Times로 당신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이에 맞는 아이에게 편지를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쓰세요!'
p13	할래, Prunella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펜팔 친구를 만들 거야! 오, Farey 아줌마 감사해요! 그녀는 종이와 펜을 꺼내고 편지를 쓰기 위해 앉았습니다.
p14	Chapter Three(챕터 3) 'Peyton Lynmouth Road Fren Lea 3월 24일 펜팔에게, 내 이름은 Prunella라고 해. 나는 키가 크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나는 형제나 자매가 없어. 너는 있니? 나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너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니?'
p15	그리고 그녀는 펜을 씹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따분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그녀는 이런 것을 쓴 사람과 펜팔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꾸기고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새 종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p16	'Peyton Lynmouth Road Fren Lea 3월 24일 펜팔에게, 내 이름은 Penny야. 나는 약간 키가 작고 검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이건 날 그린 거야.'
p17	'2. 나는 Serena라는 이름의 정말 예쁜 언니가 있어. 많은 남자애들이 그녀에게 반하곤 하는데, 그녀는 나랑 있는 걸 더 좋아해. 그녀는 내 머리를 리본으로 땋아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줘. 나는 또 Leo라는 어린 남동생이 있어. 내가 그를 찾아냈어. 만일 네가 내가 어떻게 그를 찾아냈는지 알고 싶다면, 답장을 써서 물어 봐줘. 그러면 너에게 대답해줄게.'
p18	'3. 나는 큰 Nelly라는 큰 개도 한 마리 기르고 있고 Button, Zip, 그리고 Velcro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도 세 마리 기르고 있어. 나는 학교에 친구가 많아. 하지만 나는 편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도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서 답장을 써주길 바라. 너의 친구, Penny가.'

	Pruenella는 Penny의 이름의 'Y'를 이름의 아래쪽 빈칸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p19	그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Peyton Times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Farey 아줌마가 주신 우표 중의 첫 번째 것을 뜯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잡고 눈 가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나에게 진짜 친구가 될 펜팔을 데려와 줘! 그녀는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답장은 나흘 후에 왔습니다. 그것은 P Taylor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p20	"너에게 편지가 와 있구나. 지역 우편 마크가 있는데. 어디서 온 거니?" "아마 친구에게서 온 걸 거예요, 아빠."
p21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그것을 열고 읽었습니다 : 'Peyton Ring Road 20 3월 27일 Penny에게, 나는 너의 편지가 정말 좋았고 너의 펜팔이 되고 싶어. 나에게 답장을 써서 어떻게 Leo를 찾아냈는지 얘기해줘.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내 이름은 Angel이야. 나는 형제나 자매가 없어. 나는 엄마나 아빠도 없어. 나는 고아야. 우리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p22	'2. 그는 탐험가셨어. 어느 날 북극에서 그는 북극곰을 한 마리 만나셨어. 그들은 싸웠어. 우리 아빠와 곰은 서로 죽였어. 하지만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눈밭에 무언가를 쓰셨어. 그는 펜이나 다른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 그는 자신의 피로 글자를 쓴 거야!'
p23	'3.

	그는 큰 하트를 그리고 그 하트의 안에 "Alesha + 아기"라고 적으셨어. 'Alesha + 아기' Alesha는 우리 엄마고 나는 아기였어. 결국, 비록 그가 나와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우리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어. 그녀는 간호사 품에 있는 나를 보셨어. 그녀의 마지막 숨과 함께 그녀는 "가엾은 우리 작은 천사."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내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야.'
p24	'4. 이건 그때 어땠을지 상상한 것이고 지금의 내 모습을 그린 그림이야. 어서 Leo에 대해 답장을 써줘. 사랑을 담아서 Angel이.'
p25	제일 위쪽에 쓰여 있는 Angel의 주소는 Peyton, Ring Road, 20이었습니다. Prunella는 Ring Road에 보육원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Angel는 혼자 살고 있는 걸까요? 혹은 어쩌면 그녀는 입양 됐을까요? '그녀에게 답장을 써서 물어봐야지,'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우와! 고아 펜팔이라니!'
p26	Chapter Four(챕터 4) Peyton Lynmouth Road Fern Lea 3월 28일 Angel에게, 답장을 써줘서 고마워. 난 고아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어.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니? 그들이 너에게 잘 대해주니? 이제 내가 우리 아기 동생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쓸 거야. 크리스마스에 Serena

	언니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기 위해 나와 개인 Nelly를 데리고 런던으로 갔어.'
p27	'2. 우리는 큰 크리스마스 나무를 보기 위해 트라팔가 광장으로 갔어.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굉장히 어두워졌어. 그리고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분명히 비둘기 소리일 거야." Serena 언니가 말했어.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어. Nelly와 나는 무엇이 소리를 내는지 알아보러 갔어. Nelly는 냄새를 맡고 나는 들었어. 그 소리와 냄새는 그 쪽에 있던 엄청 큰 사자 중 하나에게 나는 것이었어. 나는 그 사자가 살아서 온 것으로 생각했어! "살려주세요!" "으르릉!"'
p28	'3. 그리고 나는 그의 발톱 사이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어. 그것은 담요에 싸여 있는 작은 아기였어. 우리는 그 아기를 경찰에게 데리고 갔어. 만일 네가 무언가를 찾아냈고 그걸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너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p29	'4. 음, 아무도 그 아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Serena 언니와 나는 엄마에게 우리가 그를 키워도 되느냐고 물어봤어. 엄마는, "물론이지!"라고 말하셨어. 그래서 그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가 사자 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를 Leo라고 불러. 고아에 대해서 답장을 써줬으면 해. Penny가. 추신. 너 정말 예쁘구나.' Angel의 답장은 더럽고 낡은 봉투에 담겨서 왔습니다.
p30	그 내용은 : 'Peyton Ring Road 20 3월 29일 Penny에게, 넌 내 어두운 비밀에 대해 상상했구나! 나는 Nag 이모와 함께 살고 있어. 그녀는 아주

	늙었고 아주 못 생겼고 매우 교활해. 나는 다락방에서 살아야만 해. 아주 딱딱한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어. Nag 이모는 매일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을 시키셔. 나는 그저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어. 내 다락방은 꽁꽁 얼 정도로 추워.'
p31	'내 유일한 친구는 꼬마 울새야. 그는 매일 아침 창문으로 와. 내가 "Angel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너의 친구 Penny가" 를 읽을 때 그것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줘. 결국,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그렸던 그림은 거짓말이었어. 나는 사실 정말 마르고 누더기를 입고 있어. 많이 정말 많이 사랑을 담아서 너의 배고픈 친구, Angel이' Prunella는 그 편지로 충격을 받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답장을 썼습니다.
p32	'Peyton Lynmouth Road Fern Lea 3월 30일 Angel에게, 내 간식을 보낼게. 이게 너의 굶주림을 멈추게 해 줄 거야. 나는 오늘 학교에 나가야 하지만 내일은 너를 구하러 갈 거야. 머리를 묶고 앞머리를 내려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걸로, 내가 네가 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내일 보자! 사랑을 담아 너의 친구, Penny가.' Prunella는 학교로 가는 길에 편지를 부쳤습니다.
p33	Chapter Five(챕터 5) Prunella는 토요일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Nag 이모가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Agel을 구하는 데에는 Nag 이모가 여전히 침대에 있는 동안이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집에 데려오는 거야, Prunella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다른 아이를 원하셔. Angel은 나와 친구 같은 자매가 될 수 있을 거야!
p34	Angel은 사실 Penny가 Purenella 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Prunella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Angel도 역시 무언가 다른 것을 속였습니다. Angel은 귀엽고 예쁘다고 속여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굶주리고 말랐습니다. 여전히, Angel은 작고 까만 머리의 Penny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커다랗고 금발인 Prunella가 나타난다면, 그녀는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편이 좋았습니다. Prunella는 그녀의 앞머리를 움켜잡고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p35	그리고 그녀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고 그녀의 부모님께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나갈게요. 놀랄 만한 선물과 함께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P가' 다행히도 그녀는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p36	밖은 아직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마치 길을 따라 있는 커다란 폭죽 줄 같았습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신나게 느껴졌습니다. Prunella는 걸음을 재촉하며 뛰었습니다. 그녀는 Ring Road로 가는 내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도를 낮췄습니다. 그녀는 스무 번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집의 번호를 보았습니다.
p37	스무 번째 집은 그녀가 예상했던 종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불쌍한 고아가 갇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Prunella는 살펴 보았습니다. 다락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것은 아마 Angel이 살고 있는 곳일 것이었습니다. Prunella는 그녀의 젖은 묶은 앞머리를 잡아 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p38	'딩동!' 개가 안 쪽에서 짖었습니다. Pruenella는 마음 속으로 개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누런 이빨의 거대한 개였습니다. Nag 이모는 그 개를 사랑했지만 Angel은 싫어했습니다. '멍!' Nag 이모는 그 개에게 알맞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Angel은 오직 부스러기만 먹었습니다. 불쌍한 Angel.

p39	Prunella는 다시 길고 시끄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불이 켜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Pruenella는 매우 놀랐습니다. "Beth!" 그곳에는 Beth Hall이 간식을 잔뜩 입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p40	"아! 아무래도 내가 집을 잘 못 찾아왔나 봐." 하지만 Beth는 그녀의 앞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Beth의 뒤로 Beth의 어머니와 두 명의 남동생과 작은 개가 나왔습니다.
p41	Beth는 Prunella의 앞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같은 반 건방...진 Prunella잖아." "너 정말 부지런하구나. 놀러 온 거니?" "아, 아뇨. 제 말은 맞다고요! 저는, 아..."
p42	"놀러 온 거 맞아요. 이리 와. 내 방으로 가자." Beth의 방은 다락방에 있었지만 텅 비어 있거나 춥진 않았습니다. 그곳은 따뜻했고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는 그 안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p43	'저 애는 내 멍청한 여동생이야.' Beth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Angel은 고아라고 했는걸! 그녀는 형제나 자매가 없다고 했어!' Prunella가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글쎄 너도 Penny를 만들어 냈잖아!' Beth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거야?'
p44	'그건 다르지.' Prunella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꾸밀 수 밖에 없었어. 나는 키가 작고 형제와 자매들을 가지고 싶었어. 나는 내가 Prunella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싶었어! 너는 이미 그렇잖아. 왜 너는 Angel을 꾸며 낸 거야?' "왜나면 당연히 너처럼 내가 크고 예뻤으면 하니까!"
p45	Beth의 여동생이 그녀의 이불 밖으로 고개를 불쑥 들었습니다. "누가 Angel이고 누가 Penny야?"

	'아무도 아냐!' Prunella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 Beth가 말했습니다. Beth의 여동생은 침대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둘 다 머리를 바보같이 묶었어? 언니들 친구야?"
p46	'아마.' Beth가 말했습니다. '나 그 간식 좀 먹어도 돼?' 그녀의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Prunella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뭘 좀 말해도 될까? 만일 언니가 Prunella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면, 그냥 Ella라고 하는 건 어떨까? Ella는 좋은 이름이잖아."
p47	Prunella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Ella가 맘에 들어.' '나도 그래.' Beth Hall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가 되자.'